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글로벌 식품기업과 '맞손'

도, 매일유업과 협약 체결  
바이오분야 인재 양성  
전문가 교류 등 공동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의료 영양시장 선진화를 위한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매일유업 조상우 부사장,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매일유업은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해 전국 7개의 전문화공장과 7개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 커피, 세계 10여 국에 조제분유·특수분유·음료를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다.

특히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 유기농 유제품 생산공정인 상하공장 및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바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품질 좋은 유기농 우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3위에서 현재는 전국 부동의 1위를 놓치지 않는 유가공 기업이 되었다.

또한, 지금은 우리나라 고급 유기농 유제품 시장의 90% 점유율 정도로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

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년간 운영중인 상하공장 및 2016년 오픈한 상하농원 등 전복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며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매일유업과 전북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김관영 도지사,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 지난해 농가소득 사상 첫 5000만원대 진입

통계청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 전북 농가소득 5017만원으로 전년비 16.9% ↑  
경영 안정화 · 소득작목 전환 · 스마트화 등 민선 8기 전북자치도 특화시책 '결실'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도내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농업정책이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서 전북자치도의 농가소득은 지난해(4,291만원)보다 16.9%(726만원) 증가한 5,017만원으로 사상 첫 5천만원대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소득이 농작물과 축산수입 등의 증가로 지난해 대비 22.0%가 증가한 1,006만원이며, 농업 외 소득은 음식, 숙박업 등 겸업 소득과 근로 수입 등의 영향으로 13.2%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의 지원 시책에 의해 17.7%, 비경상소득이 17.8%가 증가하는 등 민선 8기 농업인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축산농가 사료 경영지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등 280억원을 대폭 투입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한, 쌀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 작물,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 및 쌀산

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만원대의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했으며, 생산·유통 연합조직의 생산기반을 고품질로 조성하고 유통 기반을 현대화시켜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대(5,400억원)시켰다.

아울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농촌관광객(87만명) 증가를 유도했으며, 농가의 부족한 인력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31만명)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스마트 팜을 통한 체계적 청년유입 정책 등이 결실을 맺는 등 전북자치도민들의 특화시책이 농가소득 5천만 원대 진입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자치도의 농가소득이 사상 첫 5,000만 원대에 진입한 것은 소득작목 전환, 스마트화, 규모화 등 농가들의 혁신적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2026년도에는 농가소득 6천만 원대 진입을 반드시 달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  
전북자치도의회, "황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가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우리는 슬허하게 다짐했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만호 기자

### 정서적으로 어려운 도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 체계 마련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전북자치도,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 나서  
정신건강 위험군 도민 2346명에 바우처 발급

전북자치도는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120일간 8회분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해 국가·민간자격을 갖춘 상담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2,346명에게 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 있다.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 상담인력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쿠폰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기대된다."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 회복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지원으로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더 나은  
전북을  
만듭니다

www.jbdc.co.kr

전북개발공사